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성과 및 효과성 연구보고서: 2025년도 인턴십 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목차

1. 연구의 흐름과 접근	2
1)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과 질문	2
3) 연구 방법	3
2. 업비트 넥스트 잡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	6
2.1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 개요	6
2.2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모델	8
2.3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와 현장의 과제	9
[업비트 넥스트 잡 성과 요약]	11
3. 숫자와 목소리로 보는 성과	13
3.1 일터로 내딛는 첫 걸음	13
3.2 나를 알아가는 걸음: 성취감, 자기 이해, 진로 탐색	15
3.3 삶을 버티고 넓혀가는 걸음: 위기에서 사회적 울타리로	18
3.4 소결: 각자의 위치에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22
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4
1) 제도와 일상 사이를 잇는 ‘중간 지대’ 형성	25
2) 호의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는 안전한 출발	26
3) 민간 연대 생태계와 유연한 지원 구조	27
4)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생태계적 접근	27
5.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제언	28
[부록] 참여자 설문 결과	30
○ 설문 결과 요약	30
○ 항목별 결과	31

1. 연구의 흐름과 접근

1) 배경 및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에서 벗어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생활을 해 오다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보호 종료 이후 짧은 시간 안에 학업·주거·취업 등 삶 전반의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¹. 정부와 민간의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왔으나, 대부분 단기적인 지원금, 교육에 머물러, 결핍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일 경험까지는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턴십, 진로교육, 금융 교육, 창업 지원을 결합한 민간 주도의 자립지원 모델을 운영해왔다.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인 업비트 넥스트 잡은 지역 거점과 당사자 커뮤니티,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일 경험을 쌓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직무 역량과 진로 탐색 능력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며, 일부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실제로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청년과 지역 기업, 파트너 기관이 어떤 경험을 축적해왔는지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전히 자립준비청년들은 일 경험의 지속성, 자립 이후의 생활 기반, 지역별 여건 차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역의 현장과 파트너 기관 또한 서로 다른 조건과 맥락 속에서 청년 지원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에서 업비트 넥스트 잡이 지닌 잠재력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종합적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원조직, 그리고 일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업비트 넥스트 잡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 사업이 청년 자립 역량 강화와 지원 생태계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과 질문

본 연구에서는 2025년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프로그램이 청년의 자립준비 과정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변화와 지역 현장의 맥락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개선 방향과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모델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목적에 따른 연구질문은 아래와 같다.

①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일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와 성장을

¹ 윤진·권지성·김주연·김요한(2021).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험했는가?

: 참여자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직무 역량, 관계 형성, 자신감 회복 등)을 탐색

② 이러한 변화는 어떤 지원 구조나 관계적 경험(멘토링, 지역 현장, 동료 관계 등)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 청년의 경험이 지역 거점, 기업, 지원자 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축진되었는지를 분석

③ 참여자와 지역 현장의 경험을 종합할 때, 업비트 넥스트 잡은 청년 자립 지원 모델로서 어떤 강점과 개선 과제를 지니는가?

: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및 확장 방향 제안

3)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프로그램 평가 연구	본 연구에서는 업비트 넥스트 잡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특정한 자원과 경험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경험한 효과와 변화를 평가 한다. 대상자가 경험한 질적, 양적 성과가 자립준비청년 생태계 전반에 갖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혼합연구방법	혼합연구방법은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심층적·포괄적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및 거점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일반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이어 (2)참여자 설문조사 를 통해 FGI에서 도출한 인사이트를 검증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 연구 기간

2025년 11월 1일 ~ 2026년 3월 31일(총 4개월)

○ 세부 진행 과정

1) 문헌 및 사업 자료 검토

- 국내 자립준비청년 생태계에 관한 정책 연구와 선행연구 검토
-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 문서 자료 검토
(참여자 신청서, 기존 사업보고서, 전년도 성과보고서 등)

2) 그룹 인터뷰(FGI)

- 참여 청년 대상 거점기관별 오프라인 그룹 인터뷰 4회 진행
- 이후 참여자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거점기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그룹 인터뷰 추가 진행

[표 1] 인터뷰 개요: 참여 청년 FGI

목적	참여 청년들이 인턴십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성장 파악하기
인터뷰 대상	참여 청년 총 19명(수도권 6명, 대전 4명, 대구 4명, 광주 4명)
인터뷰 기간	2025년 12월 2일 ~ 2026년 1월 22일
인터뷰 방법	각 거점기관별 오프라인 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 인턴십 지원 계기 및 경로 -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 일 경험: 적응기, 재밌었던 점, 힘들었던 점,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등 - 일 경험을 통해 내게 일어난 변화 - 인턴십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

[표 2] 인터뷰 개요: 거점기관 담당자 FGI

목적	인턴십 사업 운영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의미 및 개선점 파악하기
인터뷰 대상	거점기관 담당자 5명
인터뷰 일시	2026년 1월 27일
인터뷰 방법	온라인 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 거점기관별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맥락과 역사 - 사업 참여 계기 및 사업 운영 구조 - 청년 자립의 맥락에서 보는 거점기관 소재지의 특징 - 참여 청년들에 대한 관찰과 인상 - 업비트 넥스트 잡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

3) 참여자 설문 조사

- 2025년도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완료 청년 20명 대상 온라인 설문 진행
- 이전년도 연구와의 통일성을 위해 『업비트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자료집』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구성

-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의 확장’, ‘일터의 호의성’ 관련 문항 추가
- 주요 변화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표 3] 설문조사 개요

설문 목적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참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참여 경험과 인턴십 이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
설문 대상	2025년도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을 완료한 자립준비청년
참여자 수	20명
설문 기간	2026년 2월 23일 ~ 2026년 3월 9일 (15일간)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문항	참여자 기초 정보, 인턴십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인턴십 이후의 변화
설문 분석	5점 척도 문항을 중심으로 평균값과 응답 분포를 분석

2. 업비트 넥스트 잡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

2.1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 개요

업비트 넥스트 잡은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2022년 취약청년대상 ESG 프로젝트로 출범시킨 사업 시리즈로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 ‘넥스트 드림’, ‘넥스트 스테퍼즈’, ‘넥스트 잡’으로 구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4] 한 눈에 보는 넥스트 시리즈 사업

넥스트 스테퍼즈: 금융위기청년 자립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다중부채 청년
목적/취지	부채경감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금융 역량 강화
지원 내용	1인 최대 500만 원 부채상환금 무상 지원 1인 최대 360만 원 자립지원금 무상 지원 금융교육 및 비전 워크숍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 로드맵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넥스트 드림: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 대상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19~39세 청년
목적/취지	성공적인 채무 조정 이행 지원
지원 내용	재무컨설팅 & 생활비지원 : 컨설팅총 6회 제공 무이자 생계비 대출지원 1인당 최대 250만 원 제공
넥스트 잡: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13세~18세 보호대상아동 및 만 19세~34세 자립준비청년
목적/취지	일 경험 기반의 자립으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지원 내용	1. 인턴십 지원 - 만 19~34세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거점 맞춤형 인턴십 2. 창업 지원 - 만 19~39세 자립준비청년 대상 최대 2000만원 무이자 대출 - 마케팅, 재무관리 등 경영 컨설팅 지원

	3. 진로 및 금융교육 - 관리 실습, 생활경제지식, 저축 계획 교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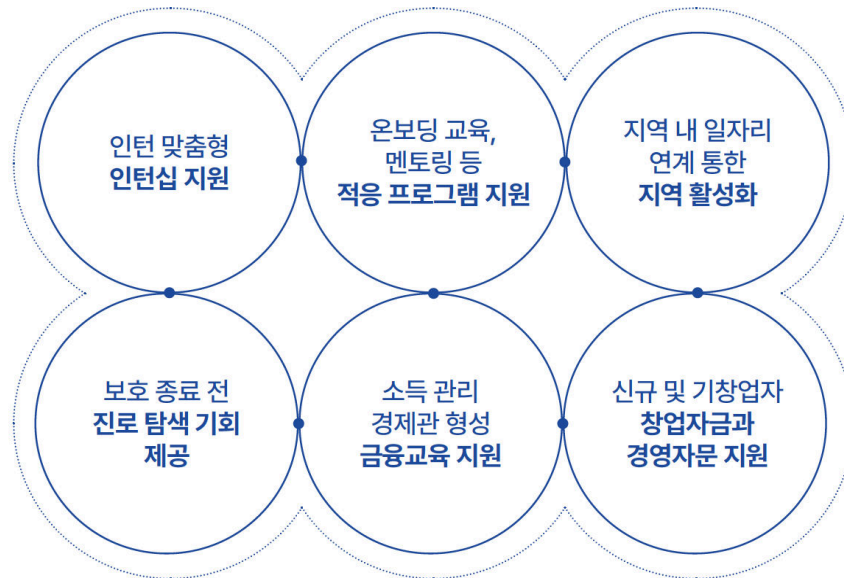
넥스트 드림과 넥스트 스테퍼즈가 긴급 생계비 지원, 재무컨설팅, 자산형성 및 멘토링으로 금융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한다면, 본 연구의 핵심 사례인 ‘업비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와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지원과 창업 지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중 인턴십 지원 사업의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워크숍을 통해 인턴십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



2.2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모델

[그림 2] 업비트 넥스트 잡의 특징점



업비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단기적으로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도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진로 및 자기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 자립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두나무의 ESG 방향과 사회연대은행의 사회혁신 조직, 취약계층 지원 노하우를 결합해 (1)맞춤형 인턴십 지원 (2)거점 기관을 통한 지역 활성화 (3)금융교육/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경영자문 지원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자립이 청년 개인의 경쟁력 강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지역 사회 관계망이 함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거점기관과 협력해 청년 개인과 지역 커뮤니티 역량을 함께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업비트 넥스트 잡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는 사업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업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거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 이후 고용 안정성 및 취업 관련 지표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인턴십이 연장된 사례가 9명에서 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신규 취업자 수도 4명에서 22명으로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기반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일시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2025년 업비트 넥스트 잡은 현재의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표 5]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연도별 변화

사업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지역		수도권	전국	전국
총 지원자 수		346명	540명	535명
지원 내용	인턴십	1) 진로탐색형_158명 2) 기간형_29명	1) 진로탐색형_178명 2) 기간형: 광역단위 거점기관 운영_50명	1) 진로탐색형_211명 2) 기간형: 광역단위 거점기관 운영_52명
	창업지원	대출 및 경영 컨설팅 지원 4개소	대출 및 경영컨설팅 지원 6개소	대출 및 경영컨설팅 지원 7개소
	금융교육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제공_155명	참여형 온라인 지출관리 프로그램 제공_306명	참여형 온라인 지출관리 프로그램 제공_265명

2.3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와 현장의 과제

자립준비청년을 둘러싼 지원 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확장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의 범위를 생계 보전을 넘어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심리정서 등 지원"으로 폭넓게 구성하고 있으며²,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은 보호 종료 이후의 사후 보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종합적 기반 조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³, 이는 취업이 자립지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뚜렷하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미취업 상태는 47.6%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진학·취업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히 채용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기간 자체를 지지하고 실제 노동

² 보건복지부. (n.d.).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

³ 보건복지부. (2023, 12월 20일).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취업 이전의 준비 과정과 이행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공익 재단 및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흐름을 보면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인턴십 연계를 중심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형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 경험과 취업 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다수의 사업이 취업 준비와 직무역량 강화라는 결과 중심의 목표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진입 이전 단계에 있거나 관계망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충분히 가닿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고 관계를 형성하며 자립의 과정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청년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즉각 투입하기 보다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고 자신만의 관계망을 형성하며 자립의 조건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자립을 개인의 의지나 역량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지역사회·일터·지원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적 과제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 경험이 자립 과정에서 가지는 실질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 사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업비트 넥스트 잡 성과 요약]

○ 숫자가 증명하는 업비트 넥스트 잡의 임팩트

구분		주요지표(5점 만점)	핵심 성과
만족도	사업 만족도	종합 만족도 4.70	직장문화(4.85) 및 거점기관 지원(4.8)에 대한 높은 만족감
역량 강화	심리적 성장	자신감 및 책임감 4.70	‘주어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관계적 확장	사회적 연결성 4.65	참여자의 75% 1인가구인 고립된 삶에서 ‘사회적 올타리’ 경험
경제 지원	경제적 기반	경제적 도움 4.75	생계 압박을 벗어나 안전한 진로 탐색의 시간 확보
	지속 가능성	미래 준비 65%	인턴 종료 직후 구직활동(40%) 및 취업, 학업 지속(25%)

○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참여자가 경험한 주요 변화

성과 영역	인턴십에서 한 경험	나타난 변화	의미
일터 적응 (사회생활의 첫 경험)	출퇴근, 전화 응대, 동료와 협업 및 소통	생활 리듬 형성, 소통 방식 학습, 책임감 형성	‘알바’가 아닌,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 으로의 전환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결과물 완성, 칭찬 경험, 다양한 업무 수행	성취감, 자신감 형성, 강점 및 성향 파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원하는지 구체화
삶의 안정과 사회적 연결	일상 복귀, 소득 확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형성	삶의 리듬 회복, 정서적 안정, 관계망 확장	혼자 버티던 상태에서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경험

○ 업비트 넥스트 잡의 성과 모델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을 수 있도록



[그림 3] 업비트 넥스트 잡의 성과 모델

Step1. 경제적 완충

안정적인 임금을 통해 위험한 단기 노동 대신 안전한 미래 설계를 위한 시간 확보

Step.2 포용적 일터

단순 매칭을 넘어 '실수를 허용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일터 발굴

Step3. 관계 형성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동료·어른과의 연결망을 제공하여 '고립'을 '소속'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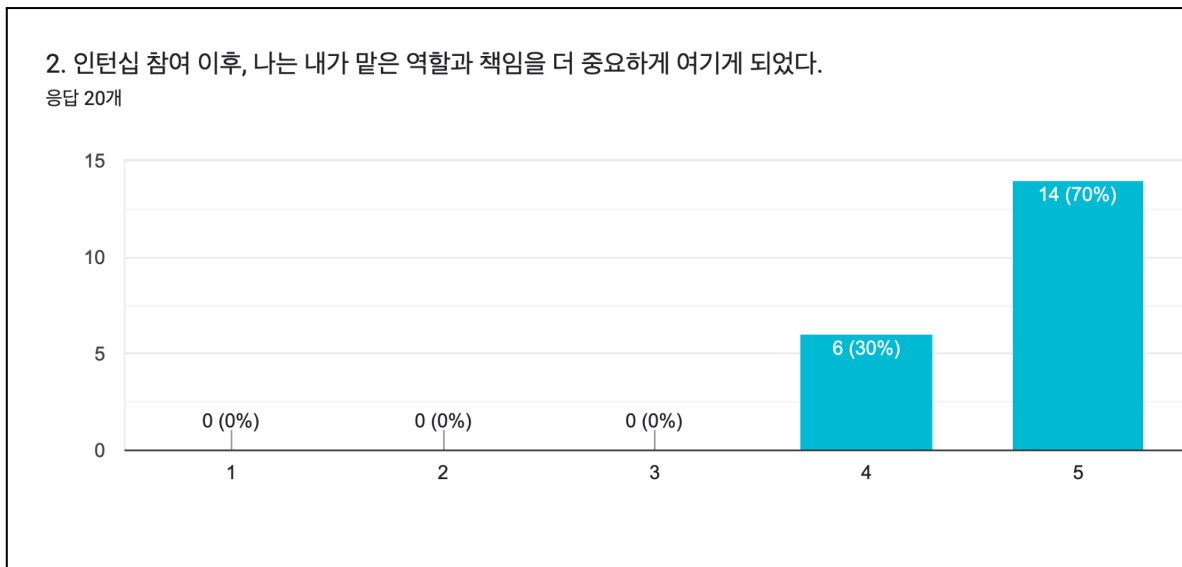
3. 숫자와 목소리로 보는 성과

본 연구는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심층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모두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이라는 경험을 통해 사회 속에서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스스로 내딛는 한 걸음은 자신의 힘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립으로의 전환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이 한 걸음의 성취가 1) 일터 적응 2) 자기 이해 3) 사회적 연결과 삶의 적응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자신감 회복, 사회생활 감각 경험,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같은 작은 성취들이 축적되어 온 과정임을 보여준다.

3.1 일터로 내딛는 첫 걸음

- ✓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변화는 사회생활의 기본 감각 형성
- ✓ 출퇴근 리듬 유지, 전화 응대, 동료와의 소통 등 일상적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몸으로 익힘
- ✓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던 아르바이트와 달리,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의 전환
- ✓ 맡은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4.70점**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변화는 '일터'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특정 직무 기술을 익히는 것과는 달랐다. 참여자들에게 사회생활의 감각이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었다. 참여자 대상 설문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응답이 4.7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 전반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의 작은 경험들 속에서 시작되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출근하는 것이 이제는 직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은 단순한 생활 리듬의 문제가 아니라, 일터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체감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작은 도전들 역시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여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화 응대 업무였다. 소이⁵는 과거 식당에서 일할 때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긴장될 정도였지만, 인턴십에서 전화 응대가 자신의 업무로 주어지면서 조금씩 시도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화를 피하기도 했지만, 상사들이 방법을 알려주고 기다려주면서 점차 적응해갔다.

“알바할 때는 혼자, 아니면 사장님이라 둘이 일했는데 지금은 좀 더 직장 생활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신경써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면서 일한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화를 받고 제 업무가 아니면 돌려드려야 하는데, 처음엔 그냥 돌리고 끊었거든요. 나중에 부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누구누구 어디서 전화 오셨습니까' 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그때 실수했구나 싶어서 바로 고쳤어요.” (소이)

참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한 새롭게 배워갔다. 이전 직장에서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혼자 업무를 처리하던 민석은 인턴십을 통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며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경험했다.

⁵ 본 보고서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원래 기존에 다녔던 회사들은 조금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을 더 안 하고 싶고 제 업무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소통의 장점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새로운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 (민석)

이러한 경험의 핵심은 참여자들이 인턴십을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체감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도연은 “알바는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느낌이었지만 인턴십에서는 내가 맡은 일을 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주어진 일’이 외부에서 내려온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이라면, ‘맡은 일’은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즉,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참여자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의 감각을 배우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익히며 일터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나를 알아가는 걸음: 성취감, 자기 이해, 진로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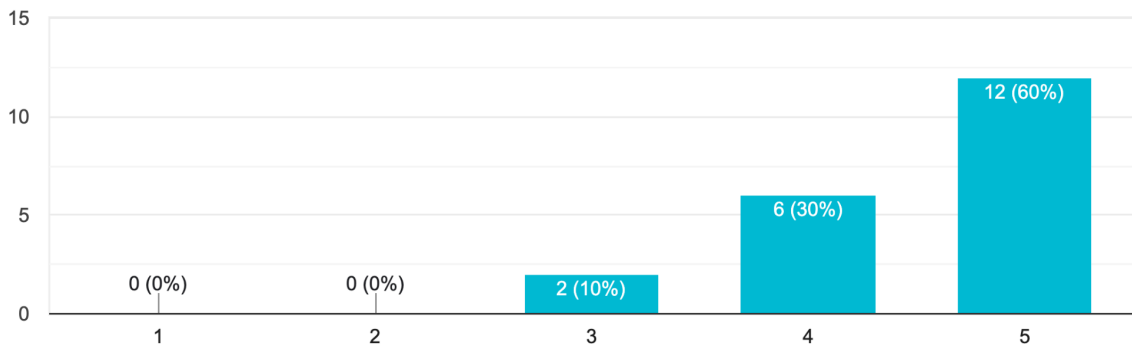
- ✓ 눈에 보이는 결과물 완성, 칭찬 경험 등을 통해 **사회적 효능감** 형성
- ✓ 실제 일을 해보며 자신의 성향·강점·일하는 방식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파악
- ✓ 맞는 진로를 발견하거나 맞지 않는 진로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구체화
- ✓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4.45점** /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4.50점** /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4.55점**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두 번째 변화는 진로 탐색에 필수적인 자기이해와 성취감이다. 참여자들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의 순간들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높아진 자기 이해는 자연스럽게 나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자신감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로 이어졌다. 설문에서도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항목이 4.45점, ‘새로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는 항목이 4.5점으로 나타나, 이러한 내면적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성장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냈다는 감각: 작은 성취가 만드는 자신감

10.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새로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커졌다.

응답 20개



먼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일을 통해 경험한 성취감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경험 속에서 강한 보람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성취 경험은 자신이 사회 속에서 실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감각, 다시 말해 사회적 효능감을 확인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운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프로젝트의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 상영회에서 공개했던 경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현정 역시 협찬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협찬 제안부터 콘텐츠 업로드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자랑스럽게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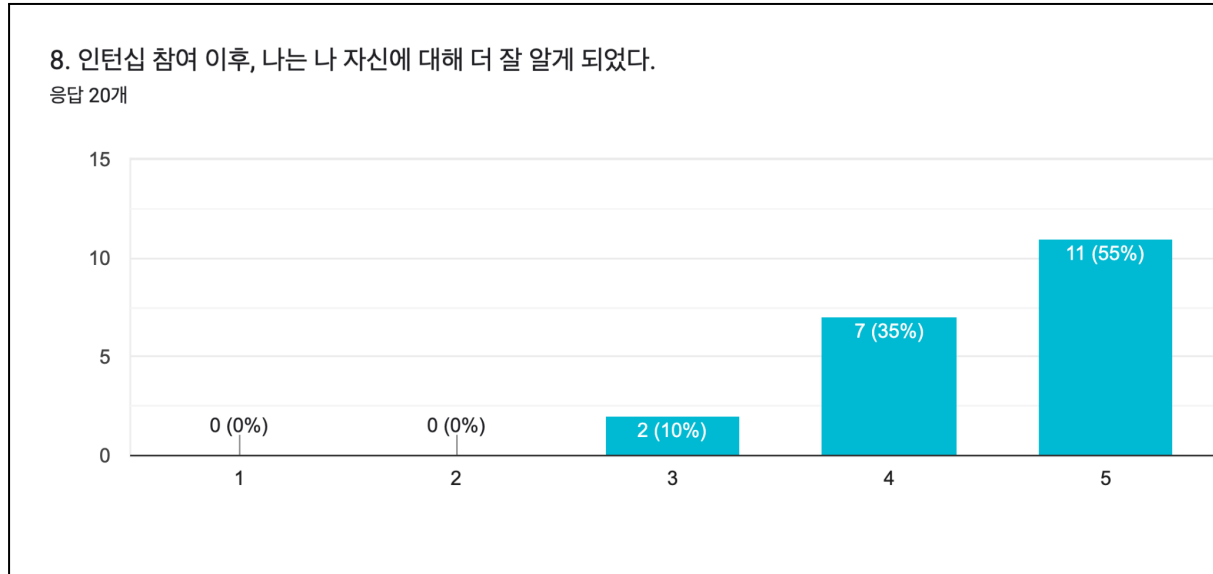
“제가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나씩 다 들으면서 편집을 했는데, 마지막에 상영회에서 그분들을 직접 보니까 연예인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관객분들 반응도 되게 감동이었고 저도 같이 보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추가 근무도 했었는데, 결과물을 보니 되게 나쁘지 않았다고 싶어요.” (태운)

“제가 인플루언서 리스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협찬 연락드리고 협찬 확정까지 얻어내고, 마지막에는 업로드된 콘텐츠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그 과정에 다 기여를 했으니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딱 결과물이 있으니까. 또 클라이언트들이 ‘담당자님 되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때 더 뿌듯했어요.” (현정)

이처럼 자신이 깊게 관여한 일이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고,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반드시 큰 성과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준은 행사 공간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미리 대비해 칭찬을 받았던 순간을 뿌듯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이 돌아가도록 자신이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감각은, 안정적인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았던 참여자들에게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 일이 보여준 나: 강점과 성향의 발견



성취감과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을 이어졌다. 실제 일을 해보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향, 강점,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전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일 경험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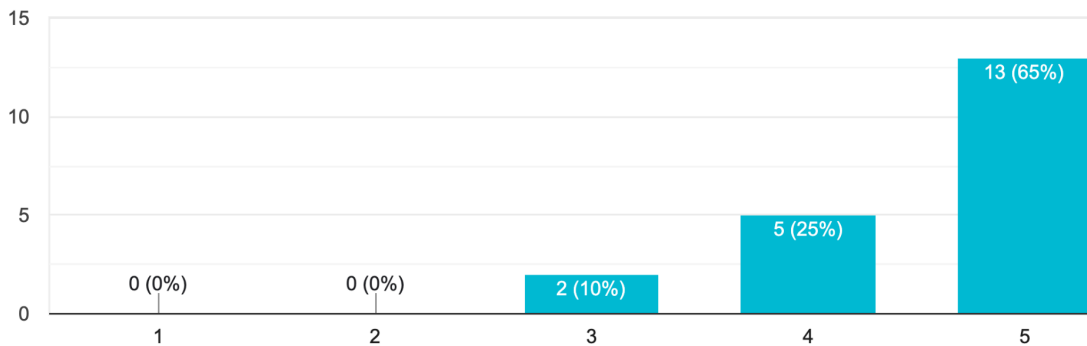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저는 업무 속도는 되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수 안 하려고 노력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윤)

“저는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됐어요.” (하린)

○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곳: 진로의 실험실

11.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응답 20개



자기 이해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설문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4.55점을 기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은은 이전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인턴십을 통해 더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심이 생기면서, 필요하다면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저는 원래도 남들 돕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누굴 돕고 싶다 어느 특정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게 조금 더 생기는, 좀 더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이런 쪽으로 마음을 고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되나 생각하다보니 사회복지도 공부해봐야겠다 싶어졌어요.” (다은)

반대로 일부 참여자들은 실제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음을 확인하며, 맞지 않는 진로를 털어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구체화해갔다. 어떤 방향이든 인턴십 경험은 참여자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실제 경험 속에서 시험해보고 조정해보는 과정이었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해나가는 ‘진로의 실험실’로 작동하고 있었다.**

3.3 삶을 버티고 넓혀가는 걸음: 위기에서 사회적 울타리로

✓ 응답자 75%가 1인 가구 — 인턴십은 무엇보다 먼저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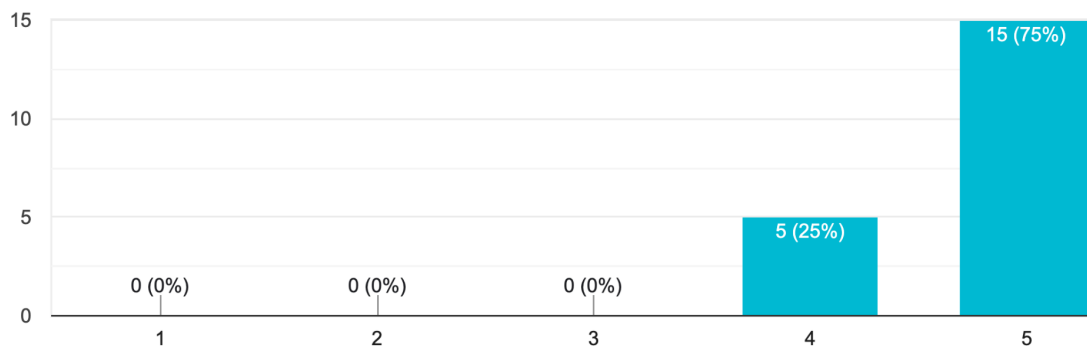
- ✓ 위험하거나 착취적인 노동 환경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선택지** 역할
- ✓ 일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동료를 만나는 경험이 사회적 관계망 자체를 확장
- ✓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 **4.75점** / 생활 리듬 안정화 **4.40점** /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 증가

4.45점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여러 참여자들에게 삶을 버티고 다시 바깥 세계와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1인 가구로, 참여자 대다수가 자신의 생계와 일상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5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인턴십이 참여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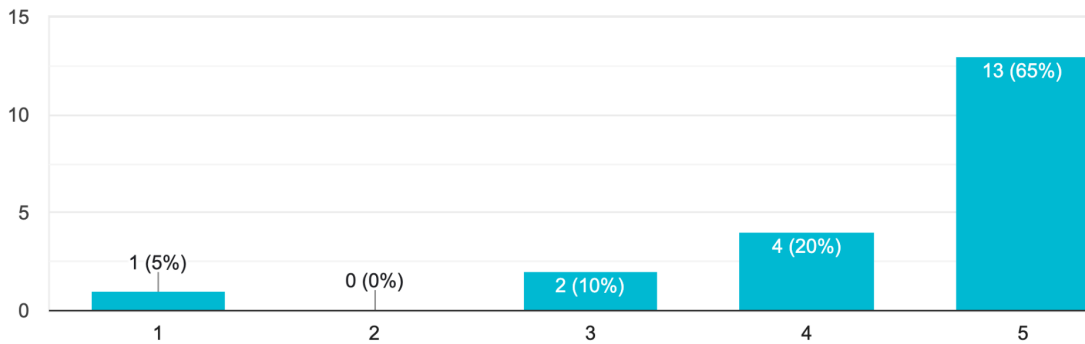
7. 인턴십 참여는 경제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었다.

응답 20개



6. 인턴십 참여 이후, 생활 리듬이 안정화되었다.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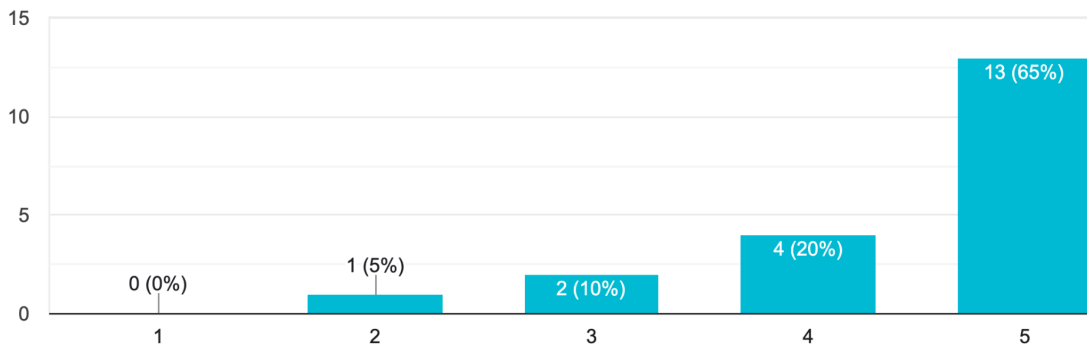
실제로 몇몇 참여자들은 인턴십 이전, 생활과 심리적인 측면이 모두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서진은 약 1년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일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인턴십 참여 이후 생활 리듬이 안정화되었다는 응답이 4.4점을 기록한 것은, 일터로 나가는 경험 자체가 서진처럼 삶의 리듬을 잃어가는 참여자들에게 일상을 다시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동안 피폐해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만큼 그랬어요. 다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갈피도 못 잡고 있었거든요. 맨날 집안에만 있다가 이 사업하면서 일단 밖에 나가게 되니 정신도 맑아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좀 피폐한 상태로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서진)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민석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는 해외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볼 정도로 수입이 절실했지만,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납치·감금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위험한 노동 환경에 대한 불안도 컸다고 했다. 만약 인턴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단기 일용직이나 위험 부담이 큰 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여자 다은은 인턴십 직전까지 갑질을 당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버티며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인턴십은 참여자들에게 위험하거나 맞지 않는 환경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선택지였다.

5. 인턴십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이 늘어났다.

응답 20개



물리적 변화만큼이나 참여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변화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몇몇 참여자들에게는 일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른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다른에게는 실수를 질책하기보다 마음껏 배우고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 상사가 삶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저는 알바할 때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세상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서 아예 일을 못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틀리기 싫으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인턴십 하면서는 그래도 내가 배우러 왔고 좀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물어보면서 할 수 있었고. 대표님도 제가 ‘배우러 온 사람’이라는 이해가 있으셔서 진짜 사소한 것도 막 다 질문해 볼 수 있었어요.” (다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응원해주는 동료들 만나는 경험도 특별했다. 현정은 인턴십에서 함께 일한 팀원들과 퇴사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근무 날 팀원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주었고, 며칠 뒤 저녁 자리에 함께 초대해주었던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았다.

“저한테 현정 님은 인턴이 아니라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팀에 많이 도움이 됐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저 퇴사하고 나서도 팀원 분들끼리의 저녁 약속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나중에 편지도 써주시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현정)

일터에서 형성된 관계는 참여자들의 기존 사회적 바운더리 자체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린은 인턴십 이전에는 가족과 몇몇 친구들이 인간관계의 전부였지만, 지역에서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이전보다 넓은 관계와 경험을 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가 원래는 가족이랑 남자친구랑 동기 3명, 이게 인간관계 끝이었는데, 일하게 되면서 거기에 눌러 오는 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대표님들과도 주기적으로 연락하게 돼서 **관점도 좀 넓어진 것 같고 인간관계 자체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인턴십을 한 곳이 사실 좀 동네 사랑방처럼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었어서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와도 되거든요.” (하린)

하린에게 그 일터는 이제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있었다. 하린은 그곳을 통해 타 지역 탐방,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스튜디오의 제안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하며 향후 작업을 이어갈 용기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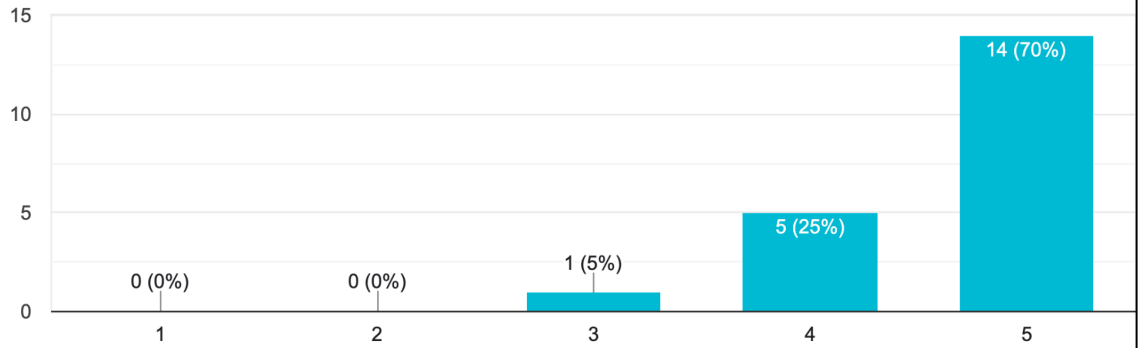
이처럼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정서적·경제적·관계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사회적 울타리'로 작동했다. 인턴십은 생활을 버틸 최소한의 소득을 마련하게 하고, 집 밖으로 나와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게 하며,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동료와 어른을 만나게 하고, 넓은 관계와 가능성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즉 참여자들에게 이 인턴십은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인 동시에, **혼자서 버티던 삶을 잠시 받쳐주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게 하는, 자립으로의 첫 과정**이었다.

3.4 소결: 각자의 위치에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안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명확한 가시적 성공이나 빠른 사회 진입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자아상의 변화나 관계의 축적과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감각을 익혀갔고, 실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을 형성해갔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이해하고 진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동시에 일터에서 만난 동료와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다. 실제 참여자 설문에서도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4.65점**으로 높게 나타나, 이러한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진전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참여자들이 처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속도로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낀다.

응답 20개



4.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업비트 넥스트 잡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그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과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단순한 일 경험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여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통합 지원 모델이다. 기존 지원 체계와의 차별점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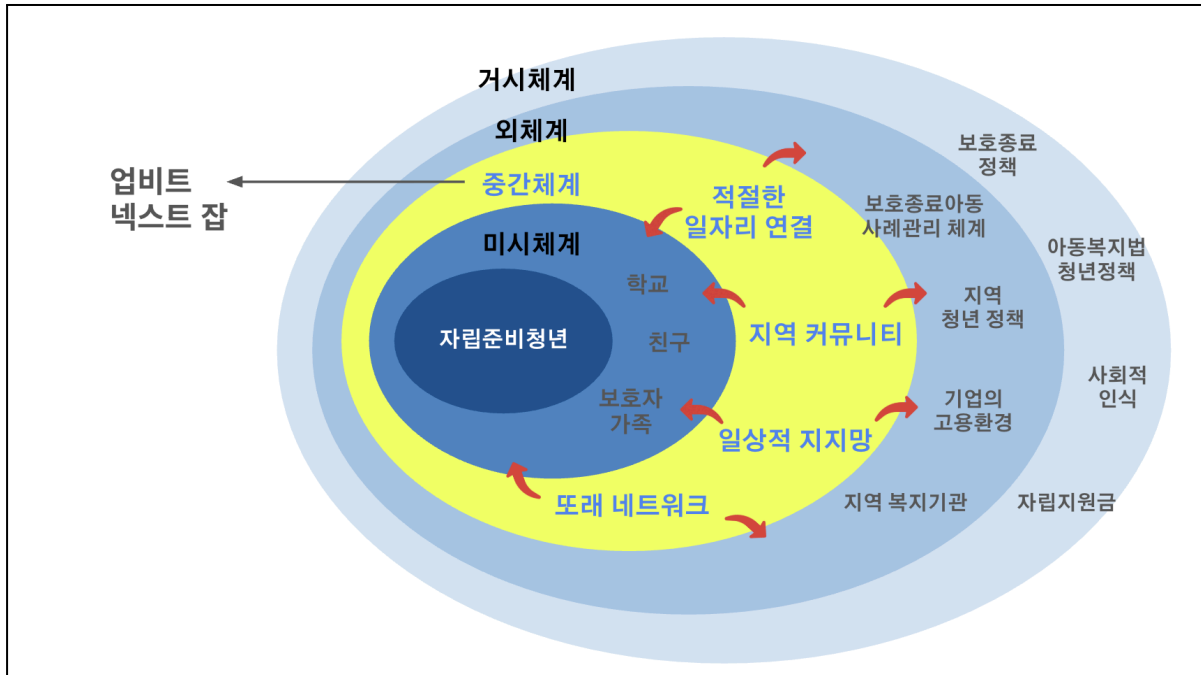
[표 6]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 속 업비트 넥스트 잡

구분	기존 지원(공공 및 타 민간)	업비트 넥스트 잡	차별적 가치
지원 대상	취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청년 중심	사회진입 이전 단계, 진로 탐색 중인 청년까지 포괄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수당·정착금 등 제도적·경제적 지원, 또는 직무교육·자격증 취득·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에 집중	일터를 매개로 한 생계·진로·관계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구조	제도와 일상을 잇는 중간 지대 형성
일 경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 현장체험·인턴십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기업을 선별해 구성한 호의적 일터에서의 인턴십	처음 일해볼 수 있는 안전한 출발점
운영 방식	중앙 주도의 일괄 배치, 문제 발생 시 탈락·종료 처리	지역 거점기관이 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기업·단체와 협력해 일터를 발굴·조율	흔들려도 이탈하지 않는 포용적 구조
자립의 정의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기반 홀로서기 강조	지역사회와 일터, 지원조직이 함께 지지하는 생태계적 과정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의 자립 생태계 구축
핵심 질문	“취업했는가?” “자격증을 뒀는가?”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을 안전하게 경험했는가?” “일터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립의 감각을 키웠는가?”	사회진입의 질을 묻는 관점에서의 전환

이하에서는 업비트 넥스트 잡이 이러한 지원 구조를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제도와 일상 사이를 잇는 ‘중간 지대’ 형성

[그림 2]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의 중간 지대를 메꾸는 업비트 넥스트 잡⁶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지금까지 주로 자립수당이나 정착금과 같은 제도적·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고, 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방향을 찾는 과정을 여전히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일과 생활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맺을 기회는 부족하고, 실패를 겪었을 때 이를 완충해 줄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제도를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줄 연결의 장이 부족한 것이다.

업비트 넥스트 잡은 바로 이 ‘중간지대’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일터에서 동료와 관계를 맺고, 거점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구성한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며, 자립의 감각을 실제 삶 속에서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즉 업비트 넥스트 잡은 제도적 지원과 개인의 자립 사이에 놓여 있던 공백을 관계와 경험을 통해 채워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⁷

⁶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생태계에 맞게 연구진이 재구성함.

⁷ 이러한 ‘중간 지대’의 중요성은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이론에서도 확인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이 개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영역을, 거시체계는 제도와 문화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구조를 의미한다. 개인의 발달은 이처럼 다양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사이를 잇는 연결, 즉 ‘중간 지대’가 취약할 경우 발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2) 호의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는 안전한 출발

일반적인 노동시장은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보호망이 약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작은 실패나 갈등도 곧바로 생계와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업비트 넥스트 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하나는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터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이다.

설문에서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 만족도가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4.85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참여자들이 일하는 환경 자체를 긍정적으로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수아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입주한 건물 안의 카페에서 근무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수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환경이었다. 수아에게 이 경험이 특별했던 것은 단순히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알고도 기회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제가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보통 약을 먹는다고 말을 하면은 잘 안 뽑아요. 근데 카페 사장님은 제 상황을 다 알고도 저를 뽑아주신거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신 거잖아요. 덕분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수아)

이처럼 업비트 넥스트 잡이 호의적인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일터의 문화와 환경을 핵심 기준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턴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핀다.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인턴을 관리할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인턴에게 기대하는 업무 역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선정에서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인턴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배우러 온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조직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실제로 거점기관 담당자들은 청년을 바로 업무에 투입하려는 기업보다는 청년이 조직과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의 흐름을 배우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들이 인턴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은 임금과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은 단순한 고용을 넘어 청년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이는 ‘임금 수준 만족도(4.65점)’와 ‘경제적 도움(4.75점)’이라는 설문 지표로도 입증된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들을 곧바로 노동시장에 투입하기보다 일의 감각과 자신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일터’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민간 연대 생태계와 유연한 지원 구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일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함께만드는세상이 20년 이상 구축해온 민간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지역 거점기관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기관들이 청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일터를 발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다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대전의 경우 참여 청년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쉼터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인턴십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쉼터 담당 교사까지 함께 참여하는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조정했다. 광주와 수도권에서도 일터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곧바로 참여를 중단하기보다는 다른 일터나 직무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대구에서는 청년을 먼저 선발한 뒤 참여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려는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업비트 넥스트 잡은 기존의 일자리에 청년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상황과 지역의 자원을 함께 고려해 일 경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에서 중요한 것이 흔들리는 과정 자체를 함께 버텨주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생태계적 접근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자립을 청년 개인의 의지나 역량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관계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은 단순히 취업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망의 부재,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부족, 그리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 사업은 청년 개인에게 교육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일하고 관계 맺으며 점진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함께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자립을 ‘혼자서 버텨내는 능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일터, 지원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적 과정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립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다.

5.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을 힘을 길러주는 사업임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출퇴근과 업무 수행을 통해 사회생활의 감각과 책임감을 익히고, 작은 성취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의 방향을 구체화해갔다. 동시에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고, 일터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쌓아갔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4.7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한 걸음 나아갔다' 4.65점이라는 설문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결국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부족하기 쉬운 정서적·경제적·관계적 자원을 보완하며, 제도적 지원과 개인의 자립 사이의 공백을 채워주는 '중간 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업비트 넥스트 잡이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4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호의적인 일터'의 표준화 및 확장

먼저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의 핵심 특징인 ‘호의적인 환경’을 더욱 확장하고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4.85점)가 높게 나온 설문 결과는 청년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자립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년들이 첫 사회생활을 비교적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한 강점이지만 이러한 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은 거점기관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친화적 일터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일터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사회연대은행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축적해 온 연대 기반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생태계를 넓혀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2) 경험의 의미를 완성하는 ‘공동 회고’의 구조화

인턴십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4.45)는 설문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참여자들은 인턴십을 통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출퇴근을 꾸준히 해내는 것이 변화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험이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 실제로 연구진이 진행한 그룹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자 스스로 변화를 인식하고 언어화할 수 있도록 ‘공동 회고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여 인턴십 경험이 단순한 ‘일’이 아닌 ‘나의 성장 서사’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청년뿐 아니라 참여 기업과 거점기관 역시 ‘자립’의 경로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직무 매칭의 정교화 및 초기 온보딩 강화

인턴십 경험이 보다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일터에서 맡게 될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턴의 역할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시작될 경우 인턴십 경험이 단순한 보조 업무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무 내용(직무,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4.45점으로 다른 요소와 비교했을 때 낮은 점수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인턴십 시작 단계에서 기업과 거점기관, 청년이 함께 인턴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청년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4) 사후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인턴십을 통해 쌓은 경험과 관계가 단일한 경험으로 휘발되지 않도록 ‘경력 확장’과 ‘사회적 안전망’이 결합된 포괄적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턴십을 통해 축적된 업무 역량이 후속 일자리나 추가적인 경력 경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장하는 한편, 프로그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서적 지지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하기 쉬운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후 관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인턴십 기간 동안 형성된 관계를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서적 연대를 구축하고 인턴십의 성과가 일시적 경험을 넘어 삶의 단단한 울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참여자 설문 결과

○ 설문 결과 요약

응답자 일반 현황

- 응답자 구성: 총 20명 (여성 13명, 남성 7명)
- 연령대: 20대 중반(60%)이 가장 많으며, 20대 초반·후반은 각각 20%
- 학력: 대졸(재학 포함) 50% / 고졸 50%
- 거주 형태: 1인가구 75%
- 이전 일 경험: 95%가 일 경험 있음. 주로 아르바이트·단기·비정규 노동 중심
- 인턴십 참여 동기: 생활비 및 자립 자금 마련 80%, 진로 관련 직무 경험 70%
- 인턴십 근무지 특성: 사회적경제 조직 근무 비중 높음
- 인턴십 이후 상태: 구직 중 40%, 취업·인턴 연장·프리랜서 등 일 지속 25% 휴식·준비 25%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만족도 결과(5점 만점)

- 인턴십 전반에 대한 만족도: 4.7
- 업무 내용(직무, 역할): 4.45
- 근무 요일 및 출퇴근 시간: 4.75
- 임금 수준: 4.65
- 근무 기간: 4.25
- 근무 장소 및 환경: 4.65
-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 4.85
- 거점기관 담당자의 지원 방식: 4.8
- 인턴십 재참여 의향: 4.65

인턴십이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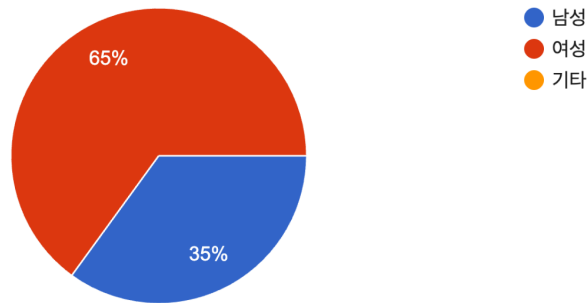
- 경제적 도움 4.75
- 맡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4.7
- 직무 수행 능력 향상: 4.45
- 함께 일하는 것이 수월해짐: 4.65
- 직장 내 소통 능력 향상: 4.6
-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 증가: 4.45
- 생활 리듬 안정: 4.4
- 자기 이해 증가: 4.45
- 자기 인식의 긍정성 증가: 4.45
-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4.5
-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고민: 4.55
-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감: 4.65

○ 항목별 결과

1) 설문 참여자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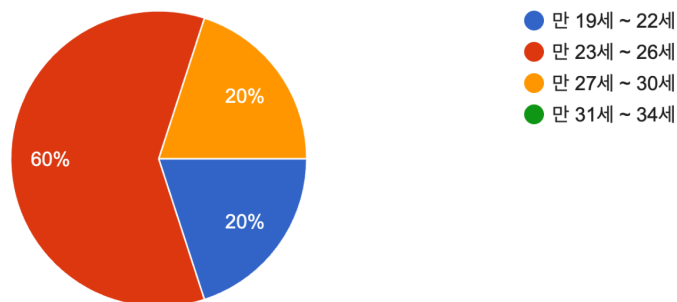
1. 성별을 알려주세요

응답 20개



2. 나이를 알려주세요(만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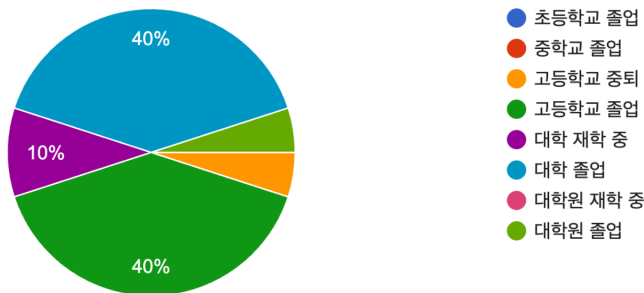
응답 20개



설문에 응답한 인턴십 참여자들은 총 20명으로, 여성 13명, 남성 7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 중반(만 23세~26세)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초반(만 19세~22세)과 20대 후반(만 27세~30세)은 각각 20%로 동일하게 20%였다. 이는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참여자들이 주로 보호종료 이후 비교적 초기 단계의 자립 상태에 있으며, 이제 막 직무 경험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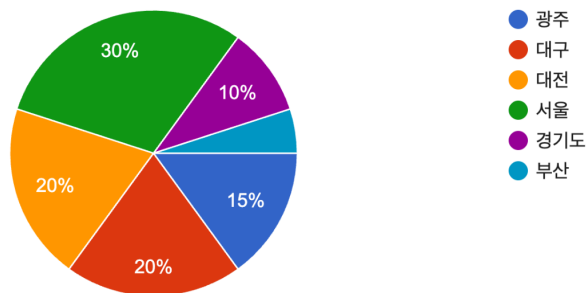
4.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응답 20개



5.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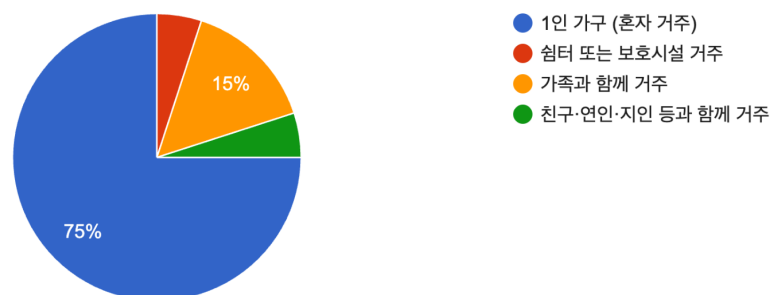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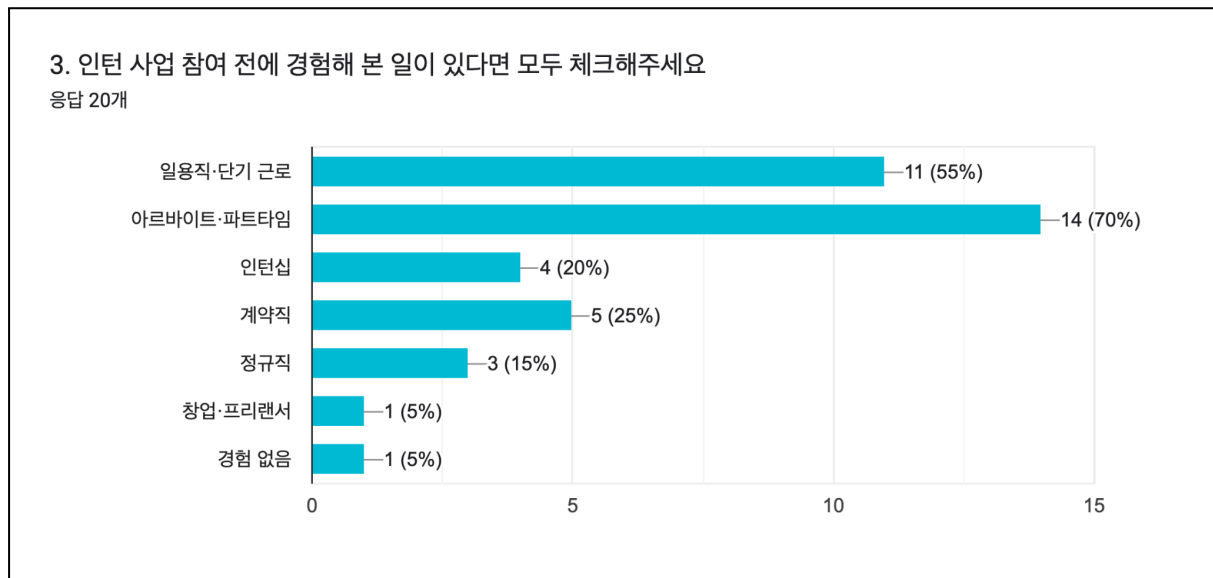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참여자가 절반,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참여자가 절반 정도로 나타나 고졸과 대졸 참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등 업비트 넥스트 잡 사업이 운영되는 거점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6. 인턴십 참여 기간 동안 거주 형태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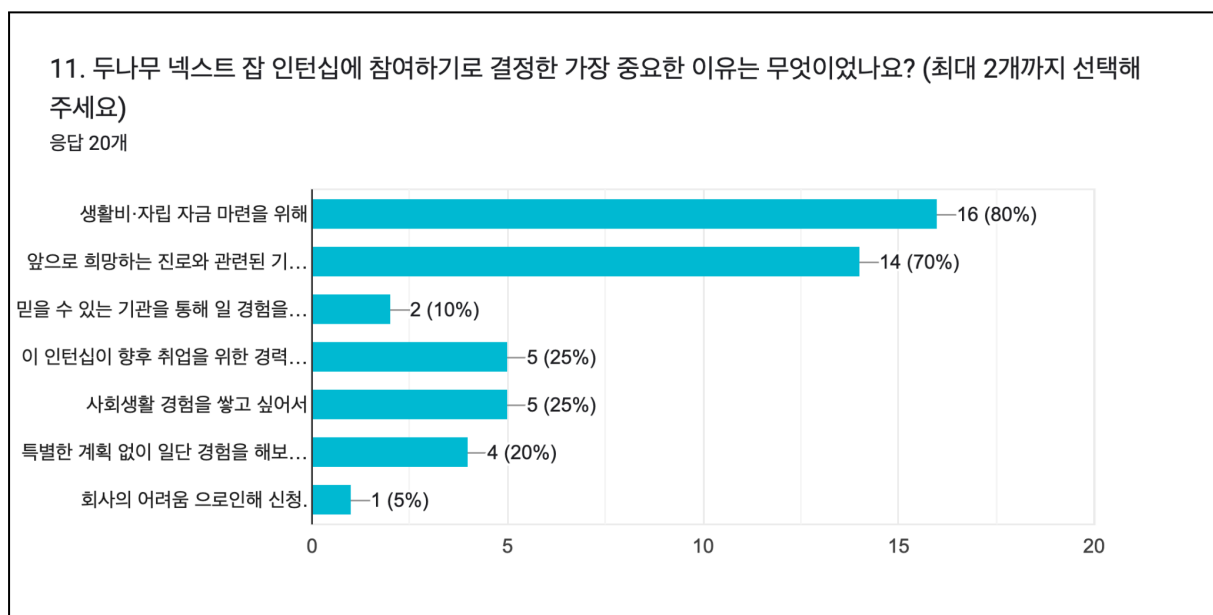
응답 20개



한편 인턴십 참여 기간 동안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15명)이 1인 가구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명에 불과했으며, 쉼터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참여자들이 이미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생계와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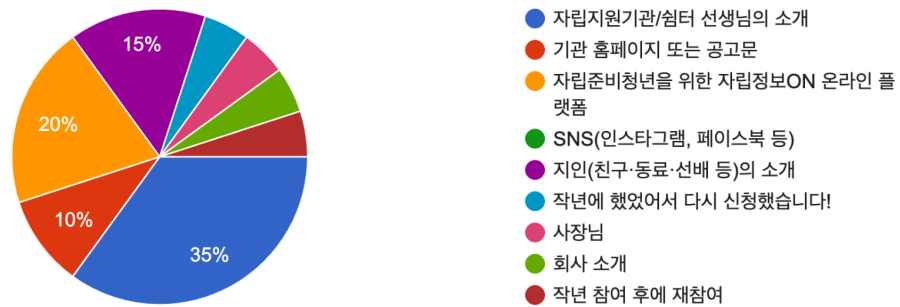


20명 중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인턴십 참여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들의 일 경험은 주로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나 일용직·단기 근로와 같은 단기·비정규 형태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정규직이나 인턴십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직장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0. 두나무 넥스트 잡 인턴십은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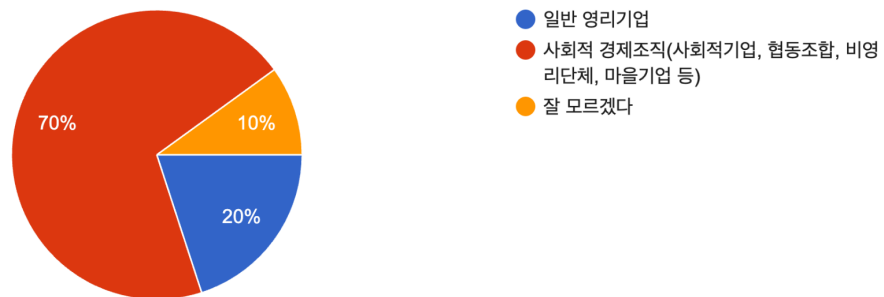
응답 20개



참여자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생활비·자립 자금 마련과 희망하는 진로 관련 기업이나 직무 경험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을 신청하게 된 경로로는 자립지원기관 및 쉼터 선생님의 소개(35%)가 가장 높았으며, 자립정보O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20%)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신청(15%)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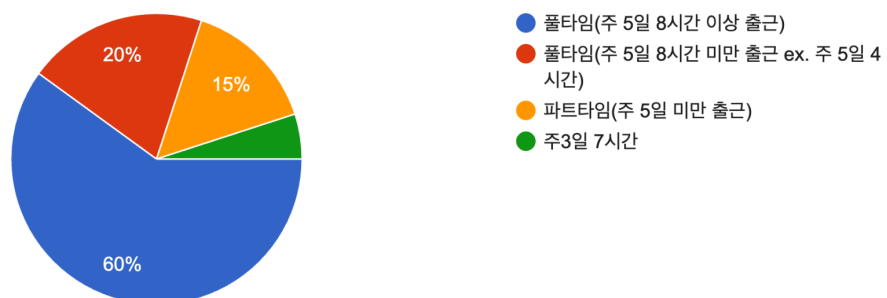
9. 근무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나요?

응답 20개



8. 인턴십은 풀타임이었나요, 파트타임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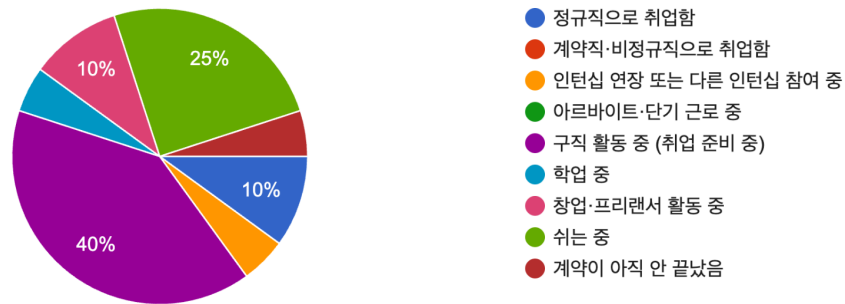
응답 20개



근무한 기업 유형을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 경험을 한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8시간 이상 풀타임 형태로 일 경험을 한 참여자들이 많았다(60%). 일부는 근무 시간이 다소 짧은 형태의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참여했다.

12. 인턴십 종료 후, 현재 취업 상태는 어떠한가요?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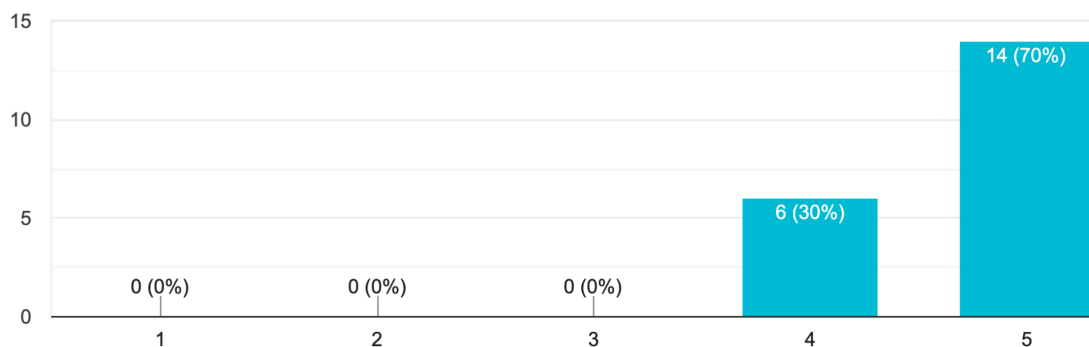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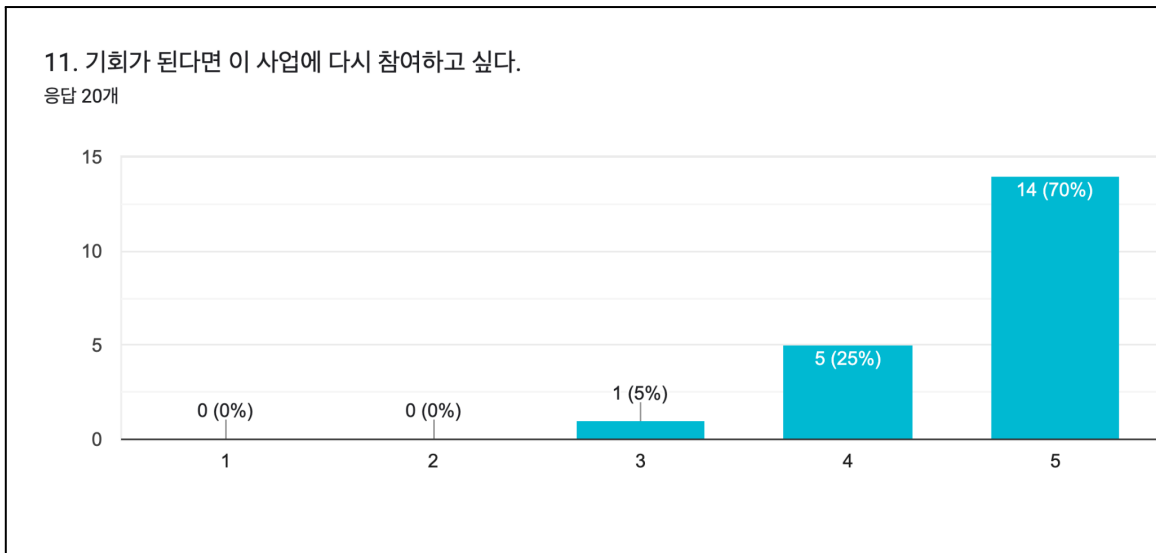
인턴십 종료 이후 참여자들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40%는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는 휴식 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규직·계약직·비정규직 취업, 창업·프리랜서 활동, 인턴십 연장 등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참여자도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2)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만족도 결과

1. 나는 두나무 넥스트 잡 인턴십 전반에 만족한다.

응답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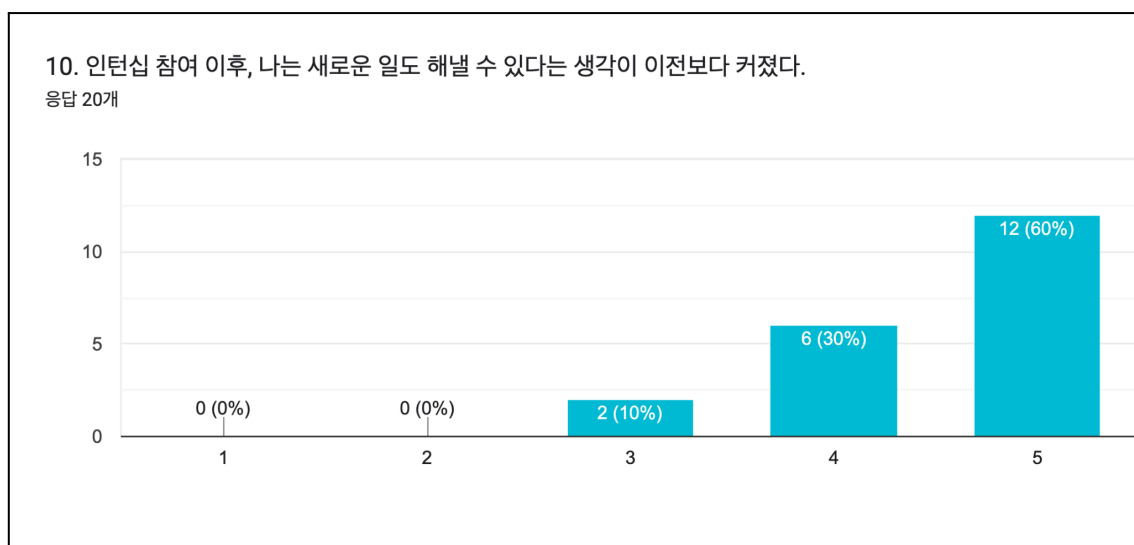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4.7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세부적인 문항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 내용(직무, 역할): 4.45
- 근무 요일 및 출퇴근 시간: 4.75
- 임금 수준: 4.65
- 근무 기간: 4.25
- 근무 장소 및 환경: 4.65
-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 4.85
- 거점기관 담당자의 지원 방식: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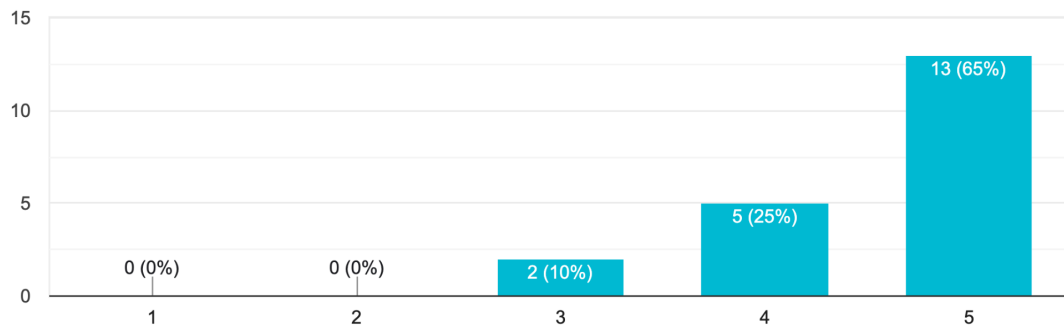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일터의 문화 및 분위기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회가 된다면 인턴십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평균 4.65점을 기록했다.

3)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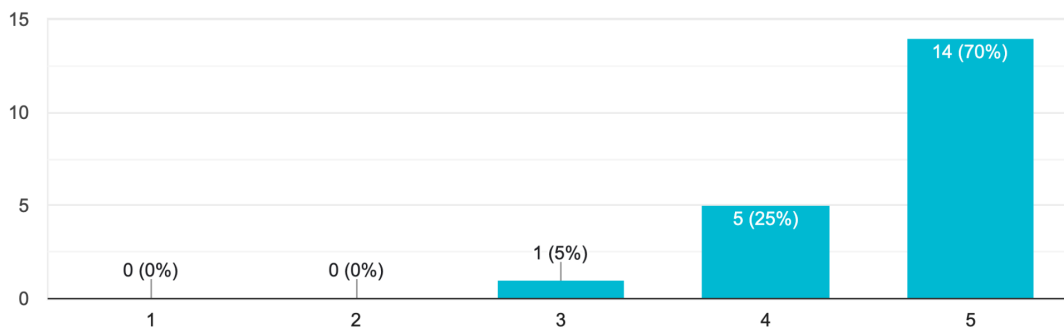
11.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응답 20개



12. 인턴십 참여 이후, 나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낀다.

응답 20개



인턴십 참여 이후, 참여자들은 자신이 체감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직무 수행 능력이나 기술이 향상되었다: 4.45
- **맡은 역할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4.7**
- 직장 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4.6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4.65
-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이 늘어났다: 4.45
- 생활 리듬이 안정화되었다: 4.4
-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4.75**
-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4.45
- 나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4.45
- 새로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커졌다: 4.5
-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4.55**
- **나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낀다: 4.65**

인턴십 참여 이후 참여자들이 체감한 변화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인 도움(4.75)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인식(4.7)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일이 이전보다 수월해졌다는 변화(4.6~4.65)를 높게 평가했다. 나아가 많은 참여자들이 인턴십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끼고 있는 것(4.6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비트 넥스트 잡 인턴십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경험하고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